

태국, 인슈어테크 현황

김연희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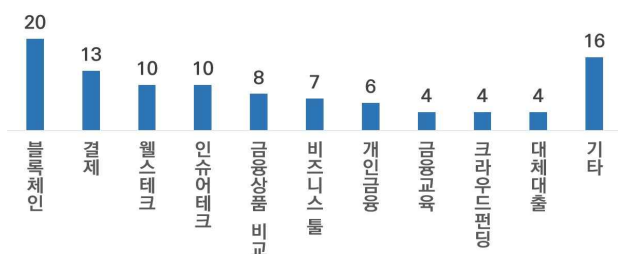
태국은 2016년부터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핀테크 역할이 확대되면서 태국의 핀테크 산업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슈어테크의 경우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태국의 인슈어테크는 보험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태국은 2016년부터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¹⁾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 중임
 - 이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차세대 인프라 구축), 스마트산업(S-커브 정책, 12대 중점산업), 스마트기업(스타트업), 스마트피플(인적자원 개발)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 또한, 태국 정부는 2016년부터 핀테크 관련 조직을 신설했고, 2018년에는 '스마트비자(Smart Visa)' 제도 도입, 2019년에는 인슈어테크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 중임
- 2023년 기준 태국 핀테크 스타트업은 107개이며, 블록체인 분야가 21개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결제 14개(13%), 웰스테크·인슈어테크 11개(10%), 금융상품 비교 8개(8%) 등의 순임²⁾
 - 스타트업 연구기관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에 따르면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2023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Report)에서 52위를 차지함³⁾

〈그림 1〉 2023년 태국 분야별 핀테크 스타트업 비중

(단위: %)



자료: Fintechnews Singapore(<https://fintechnews.sg>)

〈그림 2〉 2023년 태국 핀테크 스타트업 지도



자료: Fintechnews Singapore(<https://fintechnews.sg>)

- 1)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1인당 GDP 4,000~12,000달러) 수준에 도달한 뒤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현상을 뜻함
- 2) <https://fintechnews.sg/75450/thailand/fintech-thailand-startup-map-2023>
- 3) <https://www.bangkokpost.com/life/tech/2595329/thailand-rises-in-startup-ecosystem-index>

○ 핀테크 역할이 확대되면서 태국 핀테크 산업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슈어테크의 경우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금융상품·서비스 비교 분야의 마시(Masi)는 2016년 처음으로 투자 금액 비공개의 투자 유치를 받았으며, 태국과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설립한 선데이(Sunday)는 2021년 처음으로 4,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펀딩에 성공함⁴⁾
 - 선데이는 인도네시아로의 사업 확장, 보험대리점·중소기업을 포함한 판매 채널 개발에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임
- 싱가포르 UOB은행, PwC, 핀테크 협회(SFA)가 공동으로 조사한 '핀테크 인 아세안 2022(Fin-Tech in ASEAN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거래 건수는 5건이며, 투자금은 2억 6천만 달러임⁵⁾
 - 투자 유치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프리 시리즈 단계 1건, 시리즈A·B 단계 5건이고, 시리즈C 단계 1건임
 - 핀테크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제가 2건이며, 인슈어테크·대체대출·블록체인이 각각 1건임
- 2022년 투자를 받은 인슈어테크 페어디(FairDee)는 프랑스 투자기관인 유라지오(Eurazeo)의 도움을 받아 6,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펀딩에 성공함⁶⁾
 - 2019년 설립된 페어디는 30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제휴를 체결하여 다양한 소액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2021년 코알라 그룹(Qoala Group)과 합병한 뒤 모바일 앱 성능 향상 방안을 모색 중임

○ 또한, 인슈어테크 기업은 보험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음

- 선데이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전자제품 보증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 예측 모델로 보험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2023년에는 디텍 드슈어런스(Dtac dsurance)와 협업하여 태국 보험 업계 최초로 DIY형 보험상품을 출시함⁷⁾
 - 기업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위험도 계산모델의 진단 정확도는 70% 수준임⁸⁾
- 보험중개사 루자이(Roojai)는 자동차보험, 중대질병보험, 사고보험, 여행보험 등을 주로 판매하고, 보험회사 3곳(Krungthai Panich Insurance, AXA Thailand, Muang Thai Insurance)과 협업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함⁹⁾
 - 루자이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에 블랙박스 장착 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5분 이내로 보험처리사가 출동함
- 보험상품 판매 플랫폼 래빗케어(RabbitCare)는 핀테크 스타트업 중 금융상품·서비스 비교 분야의 기업이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기타보험(모기로 인한 질병보험, 당뇨병보험, 사이버보험, 반려동물보험), 기업보험,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며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안전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724마켓(724 Market),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는 겐고(Gettgo)와 오후(OOHOO), 개와 고양이를 위한 펫인슈어(Petinsure) 등이 있음

4) 투자 유치 단계는 시드 → 시리즈A → 시리즈B → 시리즈C로 구분됨. 시드는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이며, 시리즈A는 시장검증을 마친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며, 시리즈B는 시리즈A를 통해 인정받은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이며, 시리즈C는 시리즈B를 통해 확장된 사업을 가속화하는 단계임

5) <https://www.uobgroup.com/techecosystem/news-insights-fintech-in-asean-2022.html>

6) <https://techsauce.co/news/fairdee-series-b-with-qoala-by-eurazeo>

7) <https://about.easysunday.com/news/post?pid=4953>

8) <https://about.easysunday.com>

9) <https://www.roojai.com/en/about/>